

Open *Doors*

2020. 01. Vol. 213

박해와 선교현장

수단 *Sudan*

오픈도어 1월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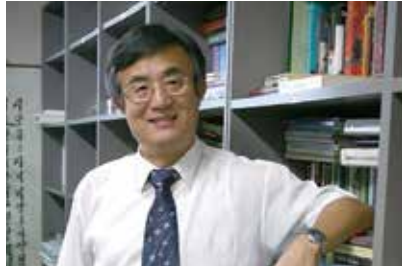
북한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

한국오픈도어 이사장 김성태 교수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성전 그 자체가 되지만 구약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짐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한 세겔의 돈을 가지고, 베드로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중 저희의 선교 사역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항상 체험한 바입니다. 경건주의 선교운동의 기수였던 진젠도르프가 체험하였고,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조지 물러가 체험하였습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1955년도에 네덜란드의 젊은이 앤드류 형제를 통해 창설되었는데 금년 65살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연말에 유럽의 한 지역에서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2019년도의 예산과 각 선교프로젝트들을 결산하고, 2020년도의 예산과 선교프로젝트들을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도어 65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28백만 달러의 예산입니다. 유럽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미국 경제도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오픈도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는지 인간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 69개국이 오픈도어선교회의 사역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지역과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들과 민족주의 종교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모든 지역의 국가들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시대

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처에 자연재앙과 전쟁과 굶주림과 난민과 무엇보다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날로 그 세력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 진영에서 사탄은 호전적인 세속주의의 물결로서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이런 전 지구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봉에 서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그 남은 바 죽게 된 상황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육간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느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지도자들은 65년의 선교회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비록 국제정세가 어렵고, 경제 전망이 어둡더라도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고, 타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모든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앤드류 형제의 삶이었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선교회의 지도자들의 삶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저희들이 전 세계의 고난 받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한국교회의 재정적 기여도가, 세계 교회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미미한 액수입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는 일은 많은 경우에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크게 선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지하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오픈도어선교회는 많은 후원을 하지만 그 사역을 공개적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교회와 모든 후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과 평강과 복을 주셔서 전 세계의 고난 받는 성도님들을 돕는 일에 많은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19)
- 06 박해와 선교 현장
수단 (Sudan)
- 10 캠페인 스토리
변절 혐의로 기소된 수단 교회의 지도자
- 13 사건과 소식
- 14 2020년 박해 지도
- 16 캠페인 사역
수단 과부들이 신앙을 버리라는 압력으로부터 전될 수 있도록 돕다.
- 21 오픈도어 박해퍼즐
- 22 2020 머스카슬론(MUSKATHLON)
- 23 북한 동포에게 소망을



OpenDoors 2020년 01월호 | 통권 213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 _최임경, 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결트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19)

드보라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주셨던 집사님의 복송소식을 들은 나의 마음은 크게 낙심이 되었다. 그렇게 별 기력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본 같이 성경공부하던 한 탈북자 동생이 나에게 북한 출신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들과 아이들을 돕는 좋은 분이 계신다면서 만나보면 격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고맙게 초청을 했는데 오시기로 했던 조선족 선생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오셨다. 머리가 노랗고 피부는 하얀데 털이 복슬복슬하고 콧대가 높은 서양 사람이었다. 전에 이런 외국인을 본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북에서부터 서양 사람, 특히 미국 사람은 악한 사람, 승냥이로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나서 너무 무서웠다. 그런데 그 무서운 사람이 나를 보고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다. ‘조선말을 할 줄 알다니?’ 너무 깜짝 놀란 나에게 그분은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며 웃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조선말을 잘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기분 좋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내 깜짝 놀란 모습이 아니라 식탁 위에 놓여 있었던 성경책이었다고 한다. 그분들은 그 책을 보고 내가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하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그분들과 교제하게 되면서 나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분들은 나에게 신앙적인 교육도 해주셨을 뿐 아니라 어려운 우리 살림에 보태라고 딸 아이 생활비도 지원해주시고 쌀도 가져다주셨다.

그렇게 도움을 받다가 하루는 그 백인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다. “저희 생각에 드보라 씨는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

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드보라님께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교사님이 거주하시는 도시로 이사할 것을 권하셨다. 나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제안이었다. 고난의 행군과 중국 생활 속에서 주로 생계를 걱정하고 먹고 살기 바빴던 나로서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마치 꿈과 같았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주시다니...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나는 권유 대로 선교사님을 따라 좀 더 큰 도시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2일에 한번씩 그 선교사님 집에 찾아가 여러 가지 지식을 익혔다.

선교사님에 집에서 처음 접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컴퓨터였다. 선교사님은 나에게 컴퓨터도 가르쳐주시고 여러 동영상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북한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여주셨다. 차인표씨 주연의 탈북자의 애환을 담은 영화 ‘크로싱’도 그 집에서 봤다.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나는 거기 나오는 악역들을 보며 ‘이 나쁜 놈들 저 나쁜놈들’ 하고 있는데 슬쩍 옆의 백인 선교사님을 보니 퍼런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북한 사람이 받는 고통에 나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는구나... 무덤덤했던 내 마음도 왠지 뭉클해졌다.



〈영화 크로싱의 주인공 김용수와 아들 준이 가족〉



내가 감동받을 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 선교사님 댁에는 한 탈북민 간담아가 있었다. 아기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복송되면서 남겨진 아이였다. 마침 백인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생후 10개월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이유식 먹이고 그 젖을 그 아이에게 먹이셨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북한 엄마의 아이를 이 백인 선교사 가정의 얼마나 귀하게 돌보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나는 북에서 배웠던 각종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백인 선교사라고 하면 미제 승냥이다 스파이다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욕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원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나 사랑하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런 사랑을 매도하며 사람들에게 분노와 원한만 키우는 교육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내가 북한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에서 가르친 내용이 다 거짓이라고 폭로하고 싶었다... 남조선 괴뢰도당이, 미제 승냥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꼭 북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렇게 선교사님 덕분에 공부도 하고 생활도 지원받으면서 나는 중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활 자체가 불안한 중국 땅을 이전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선교사님을 통해 공부도 하고 북을 안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가만히 숨어서 생활해야 하는 이곳에 머물기 보다는 더 자유롭게 북을도 전하고 기회되는대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선교사님도 내 생각을 듣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



다. 처음에는 미국을 알아보았지만 미국으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이민가기란 쉽지 않았다. 난민 신청하고 국적취득 하는데 최소 수년은 걸린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국적 취득이 어렵지 않다. 게다가 TV에 탈북민들 활동하는 것을 보고 남조선 가도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계속〉



〈2002년 5월 8일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했다가 체포당한 탈북자 장길수의 친척들. 이들은 이후에 마닐라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수단

Sudan



인구: 41,512,000명

기독교 인구: 1,910,000명(4.6%)

박해정도: 2019 세계 박해 보고서 6위

수도: 카르툼(Khartoum)

주 박해 요인: 이슬람의 억압, 독재정권의 박해,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보고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수단은 2019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 조사에서 87점을 받으며 조사 대상국 중 6위에 올랐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세계 기독교박해지수 조사와 동일한 점수이다.

1. 박해의 유형

이슬람의 압박: 역사적으로 이슬람은 수단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지배계층 및 사회 엘리트 층은 수단의 이슬람화를 목표로 한다. 배교는 범죄화 되었고 신성 모독법은 기독교인들을 기속하기 위해 나라 전역에서 시행된다. 대통령은 수단이 이슬람 국가이며 남수단의 독립 선언 이후 더더욱 타 종교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독재정권의 박해: 수단은 1989년 쿠데타를 통해 알 바시르(al-Bashir)가 집권한 이후 독재정권에 군림하였

다. 정부는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라는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제재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정부는 부족 민병대를 무장시키고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러한 단체들을 동원하여 다른 종교 단체들을 희생시킨다. 이들 민병대는 비아랍 시민(기독교 포함)을 상대로 인권 침해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7년 부패인식 지수에 따르면 수단은 180개 조사 대상국 중 175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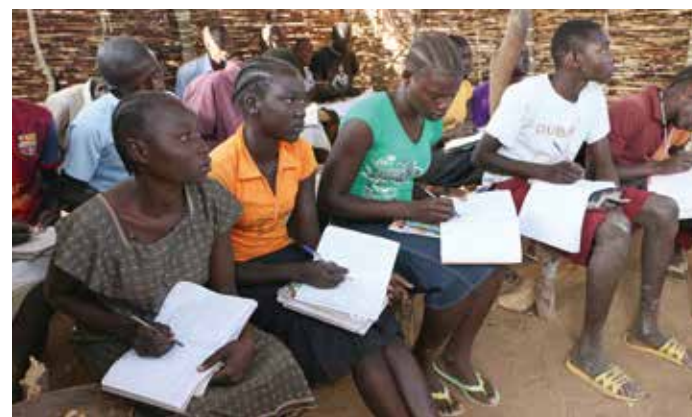
부패가 극심하게 만연해 있음을 드러냈다.

2. 박해의 주체

박해는 주로 정부와 급진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자행되는데, 그 체계성이 마치 인종 청소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알 바시르(al-Bashir) 대통령과 그의 당의 권위주의 통치 아래 법치가 사라졌다. 언론과 미디어 법은 많은 제재를 가하며,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는 실정이다. 2018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국경 없는 기자들은 “2018년 초부터 언론 탄압이 강화되었다. 지난 1월 외신 기자 등 18명의 외신 언론인이 시위 취재 도중 체포당했다. 독립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되고 기자 2명은 1년간 기자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통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3. 박해의 결과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조사 보고 기간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였다.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교회를 잃었고, 정부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수단의 민족 및 문화적 배경이 복잡함에서 기인하는 어려움도 있다. 아랍 대 아프리카 민족, 이슬람교 대 기독교의 대립이 그 예이다. 2011년 남수단의 독립도 이러한 문제들을 미쳐 해결하지 못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족



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어려움을 특히 아프리카 민족들이 많이 경험한다. 또한, 수단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들은 수단 이슬람교도들과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이러한 행위가 ‘이슬람에 대한 배교를 장려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개종자들이 직면한 박해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단	WWL 2019	WWL 2018
보고 기간	2017.11 - 2018.10	2016.11 - 2017.10
희생된 신자	0	3
공격 받은 신자	31	120
체포 당한 신자	63	20
공격 받은 교회	10	25
공격 받은 자산	20	200

다수의 체포가 있었으며 많은 교회들이 철거되고, 공식적으로 철거되기를 기다리는 교회들의 명단도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부군과 반군간 갈등이 지속되는 누바 산맥(Nuba Mountains)과 같은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는다. 따라서 개종자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것을 자제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무심코 가정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포 때문에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도의 묘지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공동묘지에서 이슬람 의식에 따라 매장되는 경우가 많다.

4. 박해 사례

- 정부가 교회를 철거하고 폐쇄하였다.
- 배교 및 개종 행위를 공식적으로 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슬람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이 특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기독교 자료를 소유하거나, 그들로부터 발견될 경우에 그들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기독교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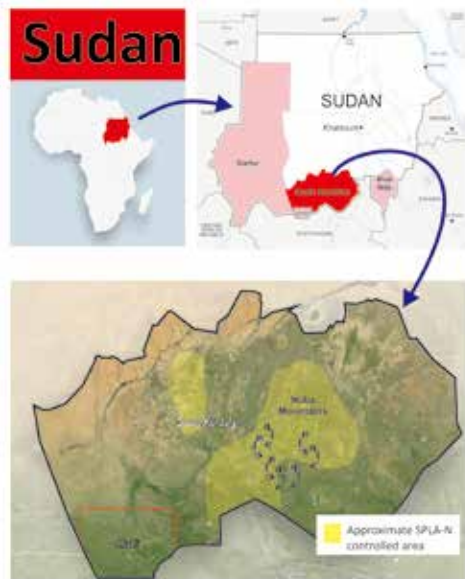


- 송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삼간다.
-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학교 등지에서 괴롭힘을 종종 당한다.
- 기독교인들은 특히 정부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표적이 되는 누바 산맥(Nuba Mountains)과 다르푸르(Darfur) 지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강도 높은 폭력이 자행된다.

사건과 인터뷰 1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단 인권유린사태

수단 정부가 2018년 12월 18일 이후 시위진압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수단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행위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반란이 시작된 후 11주 동안 50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시위는 더욱 커져서 그동안 장기 집권해온 이슬람 독재자인 하산 오마르 알 바시르(Hassan Omar al Bashir) 대통령에 대한 반란으로 발전했다. BBC는 올해 2월 13일 공개된 수사보고서에서 그동안 수집한 200여 편의 영상을 방영했는데 이 영상은 수단 정부의 시위대 진압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수단 국가정보원(NISS)이 군, 경찰, 그리고 평범한 의경들을 매수한 후 시위대들을 탄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들은 무리에서 도망쳐 집으로 혹은 길거리로 도망가는 시위자들까지 모두 색출해내어 조잡한 플라스틱 파이프를 사람들을 때리고 픽업트럭에 태워 수용소시설로 보냈으며 심지어는 실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수용소에서 풀려난 생존자들은 BBC에 수용소에서 받은 고문에 대해 증언했다. 바시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오랫동안 인권 침해 의혹을 부인해왔다. 2018년 11월, 부리(Burri)에서 열린 제9차 수단 이슬람 운동 회의에서 바시르는 수단 정부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이념과 열망, 연합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공표했다. 그는 수단 정부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가깝고 먼 모든 국가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 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던 그가 시위대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던 이 사실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몇몇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이는 인권보호단체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남수단 사이의 평화유지를 위해 수년 동안 접근이 거절되었던 다르푸르(Darfur) 지역, 남 코르도판(South Kordofan) 그리고 블루 나일(Blue Nile) 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든지 반군 단체와의 지속적인 휴전 협정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러

나 위의 BBC 보도와 함께 언론의 자유 침해, 야당 인사와 고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다르푸르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수단정부의 정치적 권리 침해의 증거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종교의 자유나 신앙의 권리(FORB)에 대한 침해 문제도 심각한데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에 대한 투옥과 고문, 무슬림 사도들의 개종 기독교인 고발, 기독교인과 선교사의 체포와 투옥, 교회 파괴와 폐쇄, 교회에 대한 토지 분배 거부, 교회 재산 몰수가 그 예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개방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오픈도어를 포함한 많은 관측통들은 비록 바시르 대통령은 금년 4월 축출되었지만 군부 정권이 장악한 남수단의 상황에서 외교적 압력마저 제거된다면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FORB)를 포함해 민간인들의 기본 인권이 계속 침해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오픈도어가 수단정부에 요청하는 내용:

1. 1991년 형법(특히 125조, 126조, 152조)의 모든 조항에서 종교나 신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에 대한 수단의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내용을 폐지하거나 수정한다. 이는 배교 및 모독법의 폐지 또는 개정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차별적 방식으로 종종 적용되는 법의 개정을 포함한다.



2. 교회 등록을 허용 하고 교회 건축에 대한 정부 금지 해제 및 새 교회 건축을 허가 발급하고 파괴된 교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교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고, 압수된 교회 재산을 반환하고, 교회의 내부 간섭을 중단한다. (또한 교회가 기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기독교 학생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기독교 교사를 임명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금 부족으로 저임금을 받게 될 기독교 교사를 교회가 강제로 임명하게 하는 것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또한 기독교 학교들이 일주일에 4일정도만 문을 열게 하거나 일요일만 문을 열게 하고 토요일마다 휴교하도록 강요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빠져나가게 만든 2016년 결정을 철회한다.
4.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비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급습하는 행위포함), 종교적 결속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공격하거나 차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에게서 책임을 묻도록 한다. 정부는 또한 국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종교의 자유 및 모범 사례에 대해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을 훈련 시켜야 한다.
5. 국권 분립 강화, 사법부의 독립 지원, NISS 운영의 투명성 및 엄격한 책임 보장.
6. 종교적 신념, 실천 또는 표현에 근거하여 수감된 개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해제 및 취하하고,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종교관행과 신앙을 위해 감금되어 있는 개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스토리 1

변절 혐의로 기소된 수단 교회의 지도자

수단 교회 지도자는 경찰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신앙을 철회하기를 거부하여 변절혐의로 인해 10월 2일 일요일에 다르푸리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타지딘 이드리스 유세프(Tajadin Idris Yousef)는 10월 13일 다르푸르(Darfur) 남서부 니알라(Nyala) 시의 한 가정집에서 보안요원들이 납치한 13명의 수단 기독교인 단체의 지도자이다. 체포된 사람들 중 3명은 분쟁으로 파괴된 수단 남부의 누바 산맥 출신이며 기독교계 출신이다. 유세프(Yousef)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을 철회시키기 위해 감금, 구타 등 여러 가혹한 압박을 가한다.

이들 중 9명은 결국 굴복하여 지난 일요일(10월 21일)에 벌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평화 파괴"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유세프는 그의 신앙을 부인하기를 거부했고 배교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의 공판이 진행되는 월요일(10월 22일)에 풀려나 사흘에 한 번씩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수단은 오픈도어 세계기독교 박해보고서(Open Door World Watch List)의 기독교인으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50개국 중 4위이다.

무슬림이 다수인 수단에서의 사도행위는 범죄이고, 그들이 신앙을 철회하기 거부하면 투옥이나 사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배교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14년에 풀려난 수단 여성 마리아姆 이브라힘(Mariam Ibrahim)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자신의 문제가 수단의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교회가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교회는 건물을 짓고, 교회의 땅인 기독교 학교를 재판매하고 있다. 내가 석방된 지 1년 만에 두 명의 목사 피터 옌(Peter Yen)과 얏 마이클(Yat Michael)이 체포되었고 그들은 기독교 소녀들로 하여금 와인을 만들게 하고,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는 죄로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리 2

수단의 기독교인에 대한 조직적 핍박

이슬람은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고,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규제를 직면하고 있다. 북쪽에서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행정에 일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민족 자결권과 종교적 자유를 위해 싸우는 반역자들에 대항하는 정부의 전쟁이 민간인들을 대항한 전쟁이 되어 왔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집과 농장과 교회와 병원에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이것이 큰 이동을 야기시키고 사람들을 무언가를 심고 수확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남수단에서 평화안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찾으면서 수년간 그곳을 막은 후에 다르푸르주와 코르도판 남쪽 주들과 블루나일에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반역 단체와 계속되는 정전 협정과 같은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었다.

그러나, BBC 보고에 따르면, 다르푸르주에 언론 자유

침해, 인지된 반대편 인물에 대한 고문, 이동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계속된 조직적인 인권 남용을 포함하여 인권이 정책의 문제로서 침해된 채 남아 있다는 중요한 증거들이 있다.

이슬람으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투옥, 이슬람에서 개종한 배교자들에게 고소, 거짓 고발로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체포하고 투옥시키는 것,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문닫게 만드는 것, 교회에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등을 포함하여 FORB에 대한 권리에 위반하는 것들이 있다.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FO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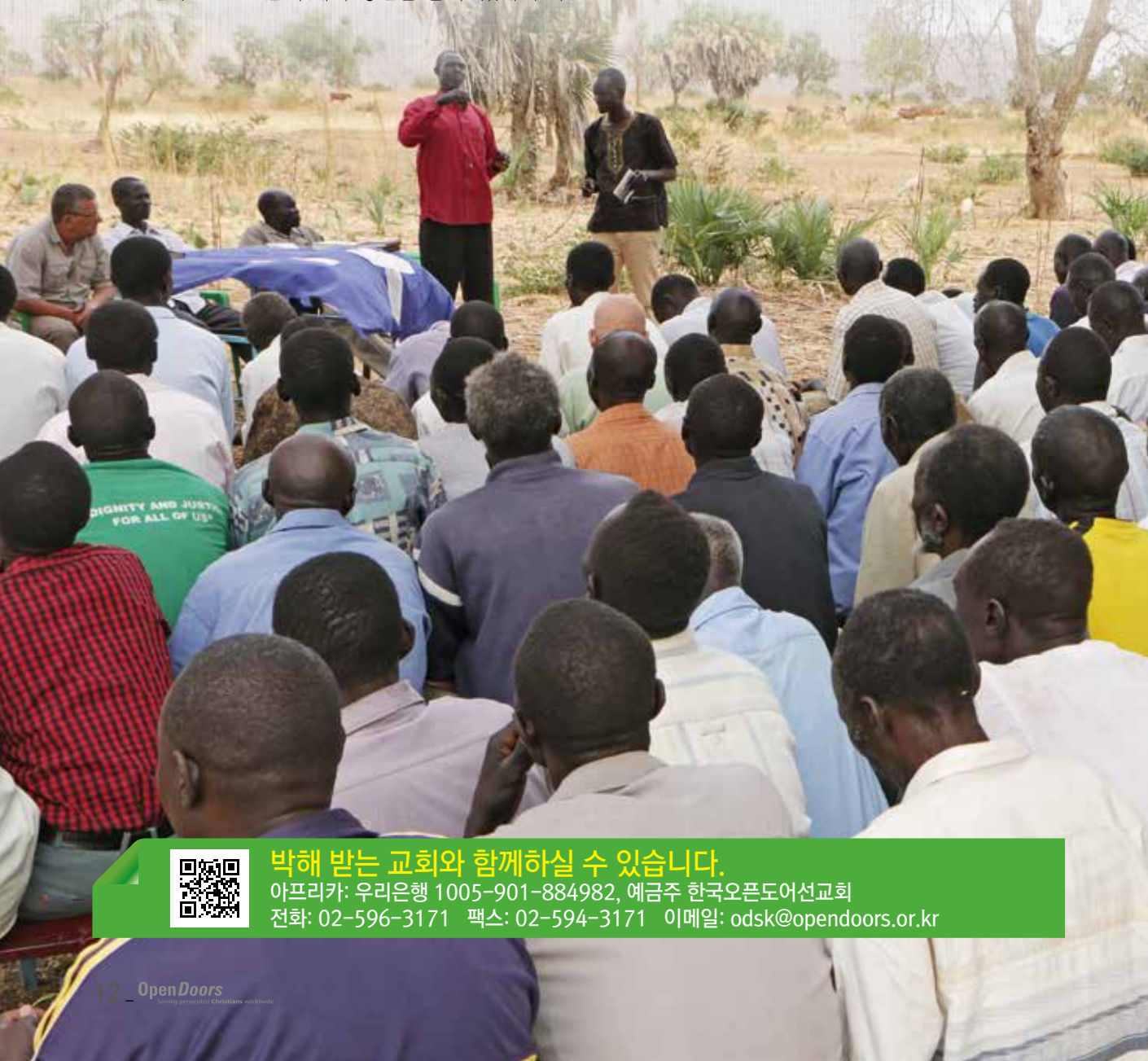
당신의 후원은 오픈도어가 계속 해서 구호와 격려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미라 주마(Amira Juma)는 수해자 중 한 명이다. "내가 많은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회를 보내주셨고, 수수를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장

로님들이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작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었어.’ 그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느꼈지만)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과부들을 도와주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후원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트랙터 덕분에 우리는 공동체가 더 많은 양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돕고 기부할 수 있다.

-2018년 남 코르도판 주에서 정전을 할 수 있게 우리

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누바산에 공동체들이 지난 몇 년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작물들을 심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적당한 때의 비가 내려주길 그리고 이 공동체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길 기도한다. 평화가 지속되길 기도한다.

-오픈도어는 다양한 분배 프로젝트와 훈련과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수단에서 후원한다. 기독교인들이 계속적인 감시를 직면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길 기도한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사건과 소식

콩고(Congo)

11월에만 확인된 기독교인 47명을 포함해 최소 84명의 사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13명이 실종되었고 그들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합민주군(ADF)은 이슬람의 팽창주의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 강간, 아이들과 여성 납치, 노예매매와 세뇌와 같은 끔찍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전은 이번 달 초에 있던 최소 10번의 공격으로 기독교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화가 많이 난 젊은이들이 살인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보이켄의 주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인도(India)

남인도의 교회 모임에 반대하는 폭력은 대부분의 지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화재와 끊임 없는 교회 공격 외에도, 정부는 특히 기독교 예배를 위한 예배당 건축에 많은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 협력자들은 "정부가 예배당 건립을 제한했을 때 신도들은 가정에서의 예배와 집회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은 집들이 점점 더 감시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경찰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공식 지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기로 선택한 신도들에 대한 감시와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남인도 뿐만 아니라 인도 어느 곳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보호는 없습니다. 교회 예배가 공격을 받고 신도들이 다치고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수백 건의 사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Ethiopia)

금년 10월말에 있던 폭동으로 인해 90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지난 주 두 정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이 폭동은 자와르 모하메드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의 길거리와 오로미아의 다른 곳에서 자와르를 지지한다며 나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시위는 점점 폭력적이게 변하였고, 3명의 전도자들을 포함한 8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또한 보레다 마을의 한 순복음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3일에 발생한 공격으로 쿠르파 첼레 지역의 폭도들이 두 개의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비상재난센터의 지도자들은 폭도들의 증거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남부 이스라엘은 지난 주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자 지구 내 이슬람 지하드 지도자 중 한 명의 집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은 후, 이 단체는 남 이스라엘 각지에 수백 개의 로켓을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와 남부 이스라엘의 폭력사태는 11월 12일 화요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지도자인 바하 아부 알타를 공격하고 살해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단체는 약 48시간 만에 이스라엘 남부로 4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 몇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이 말하는 '이슬람 지하드 인프라'에 총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테러리스트 25명을 포함, 36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5명을 포함해 8명의 가족 1명이 있었습니다.



사역 1

수단 과부들이 신앙을 버리라는 압력으로부터 건달 수 있도록 돕다

누바 산맥의 곱고 붉은 흙 위로 태양이 내리쬘자 약 백 명의 여자들이 교회에 모였다. 더위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여자들은 개의치 않았다. 더한 유대감과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그들은 몇 마일을 걷고 지붕이 없는 차를 몇 시간이나 타야 했다. 그들과 함께 교육받고 격려하며 함께 있기 위해 외국에서 온 팀이 며칠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 중 한 명은 50대에 과부가 된 세이다 누리(Saida Nuri)였다. 그녀는 몇 년 전에 이슬람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되었다. 개종 후 몇 년이 지나 그녀는 기독교인인 피터와 결혼했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였고 함께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이를 주셨죠. 하지만, 2011

년에 전쟁이 나자 남편은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군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이다의 가족은 남편이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망 소식은 온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몇 년 후, 세이다의 맏아들은 북부인들과 살기 위해 정부 통제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는 제 아들의 생사 여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끔 아랍인들에게 살해당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맏아들이 제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심적으로 정말 괴롭습니다. 남편에 이어

이젠 아들까지 잃었는데, 이런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세이다의 가족은 갈수록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다. 그들은 그녀가 기독교를 포기할 생각이 있다면 그녀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취약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건 제 신앙심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며 저를 시험에 빠뜨리죠. 그들은 제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일 만한 것을 준다고 하며 제 신앙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지원은 받겠지만 신앙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도 제게 정기적으로 마음이 바뀌

었느냐고 물으려 옵니다."

오픈도어는 사역자들을 통해 수년 동안 누바 산맥에 있는 교회와 협력해왔다. 우리가 협력한 분야는 어려운 상황에서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다. 최근, 교회는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협력체의 도움을 통해 음식을 제공했다.

세이다는 이번 행사가 "서로 기도하며 걱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고 밝혔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계속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서로 나눈 이야기는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며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부디 저와 누바 산맥의 모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사역 2

어린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한다는 압박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급진 주의자들에게 이끌리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들에 유혹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점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 부분은 종종 간과되고 무시됩니다. 앤드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걸어왔습니다.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그들은 최근에 배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현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순간, 저는 제 어린 시절과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찬양들로 제 영혼에 세워진 믿음의 기초와 그것이 제가 어떻게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할 때 도움을 주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 이곳에서 진행하는 사역은 오픈도어의 교육 지원을 받았습니다. 앤드류는 "저는 훨씬 어렸을 때 오픈도어의 신학교육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자 오픈도어에서 제 학비를 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앤드류는 너무나 방치되는 교회의 어린이 사역에 주위 사람들이 그와 충실히 참여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통해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어린이 사역을 이해하도록 돕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가르칩니다. 제 기대는 사람들이 어린이 사역을 부담이 아닌 소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서 주신 축복으로 보길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의 이 지역의 어려움을 볼 때, 이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지역 오픈도어의 또 다른 청소년 사역 담당 파트너인 존은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대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또한 몇몇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종종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도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자신감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그들이 받은 지원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앤드류는, "개인적으로 저는 오픈도어의 지원에 대해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손을 내밀어 어둠 속에서 꺼내 희미한 빛에, 더 나아가 밝은 정오의 태양이 있는 곳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생소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종을 봅니다. 아이들을 볼 때 오늘날의 교회를 봅니다. 마치 다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무언가를 놓으셨고, 한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이들을 볼 때 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2020 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북한 캠페인

북한에 복음과 떡을 보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어린이 및 청소년 캠페인

박해의 희생양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습니다.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김성태(한국오픈도어선교회)

“중동에 희망을”(Hope 4 ME) 캠페인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여성 사역 캠페인

박해로 남겨진 여성들의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연말정산 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 내시는 모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 3 및 제47조, 제49조
동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면, 연말정산시
세금 공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전화 : 02)596-3171 메일 : opendoors@korea.com

오픈도어박해퍼즐 1월호



	1		2				
						4	
			3				
5							
		7					
					8		
6							
				9			

가로열쇠

1. 애굽과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
의 가시나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
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 붙은
불꽃을 담고 있던 나무이기도 했다.
3. 2019년 기독교 박해지수 30위 국가. 아시아 내 이슬람
국가이며, 인구의 약 8%가 기독교인이다. 자국 내 기
독교인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와 차별이 증가하고
있다.
6.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 요압과 아사헬의 형제.
훗날 다윗의 큰 용사 가운데 한 명이 된다. 그는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하였으며, 다윗을 반
역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다.
7. '혼란'이란 뜻. 갈대아의 수도.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
을 쳐부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최초의 이방 국
가.
9. 노아 홍수가 그치고 물이 감한 뒤 방주가 머물렀던 산.
노아 방주 사건 외에 앗수르 왕 산헤립의 두 아들이
부친을 살해하고 이곳으로 도망친 일과 선지자 예레
미야의 예언 중 바벨론을 멸망시킬 도구로 사용될 열
국 중에 이곳이 언급되기도 했다.

세로열쇠

2. '구분(구별)된 자'란 뜻.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
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한다. 사사 삼손,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 세례 요한 등
이 있다.
4. 야완의 아들이자 그의 자손이 세운 성읍 명칭. 선지자 요나는 앗
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
하고 이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거
도 했다.
5.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 강을 건너 약속
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각 지파 백성
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성취했던 지도자이다.
7. '분리된 자, 거룩한 자'란 뜻.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회당 조직을 통
해 전 우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 분리주의, 권위주의적인 특권
의식에 빠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8.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율법학자. 바벨론 포로 당시
(B.C. 586~537)에 바벨론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포로 시대가 끝
나자 8,000명의 동행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대교의 기
초를 닦으며 민족을 지도하였다.

■ 지난 달 정답 ■

밀	랍		주				
	비	돌	기				아
			도		사		비
			문		마		수
정	탐	꾼			리	비	아
	심		호	세	아		
				마			
			포	도	나	무	

12월호 당첨자

류*화 (1692), 김*진 (6334), 백*재 (8261)님, 축하합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20년 1월 10일)

2020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20년 4월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6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북한 동포에게 소망을

오랜 기간 세계기독교 박해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북한의 교회 동토의 땅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는 형제자매들의 고난에 동참해주세요. 그들의 환란과 고난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희망의 선물 2020 캠페인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